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금강부원 (살타원)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 남방에 위치한 부원으로서 금강부원 또는 살타원이라고도 한다. 본원에서는 주존인 금강살타를 비롯해 21존과 사자 12존으로 총 33존으로 구성돼 있다.

금강을 실담범자로 바즈라(vajra)라 하는데 이는 금속 중에서 가장 강한 금강석 또는 다이야몬드를 말한다. 경론에서는 주로 무기와 보석으로 표현 하는데, 무기라 할 때는 금강저(金剛杵)로 표현하고 예리하고 견고함을 금강석(金剛石)에 비유한다. 보석으로 비유 할 때는 다이아몬드를 말하는데 이는 곧 반야를 체(體)에 비유(譬喩)하며 실상반야(實相般若)를 나타내고, 반야의 쓰임(用)으로는 관조반야(觀照般若)를 나타낸다.

연화부원에서는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면, 본원에서는 지혜(智慧)를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⑥ 청각장애인 정인순 씨



광림사 대소사를 돕고 있는 정인순 씨(왼쪽)가 해성 스님과 함께 불단에 올릴 꽃꽂이를 하고 있다.

꽃꽂이 공양 신심에 장애는 없다

연화원 해성 스님을 뵈려고 광림사로 가는 길은 완연한 봄볕으로 따뜻했다. 광림사에는 반가이 맞아주시는 스님의 "어서 와요" 하는 한마디와 법당 한쪽에 놓인 꽃꽂이용 꽃다발의 향기가 어울려 봄이 가득하였다. 연화원의 발달장애 친구들과 안부가 궁금했던 청각장애인 정인순 씨를 만나는 일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마침 정인순 씨는 불단에 올릴 꽃꽂이 꽃을 준비하고 있었다. 카네이션, 버들강아지 등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꽂아가는 손놀림이 능숙하고 얼굴에는 기쁨의 웃음이 떠나질 않았으며 꽃꽂이 솜씨는 전문가 못지않은 뛰어난 실력으로 보였다. 그의 꽃꽂이 실력은 2000년 연화원에서 여성 청각장애인들에게 실시한 꽃꽂이 교실에서 교육을 받은 덕이고 청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광림사 1층에 열렸던 꽃집 '꽃 사랑 소리사랑' 에서 일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옆에서 꽃꽂이를 도와주시던 해성 스님께서는 대학생 수어동아리와 연계하여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 한글교실에서 한글을 공부했던 정인순 씨 이야기를 해주셨다.

늘 한글교실의 모범생이던 당시를 회상하며 일곱 살짜리 아들이 글을 배우면서 모르는 것을 물을 때 대답해 줄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는데 아들과 같이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고 강조했던 말은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다. 정임순 씨는 나와 스님의 대화를 보다 법회 때마다 엄마와 함께 한글을 배우던 그 아들이 올해 대학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비장애인인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 밑에서 크다 보면 조금 늦은 편인데 잘 자라 주어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정인순 씨는 광림사에서 공양주 역할을 하고 있다. 재가 있을 때면 장보기 상차림 등 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기타 대소사에도 솔선수범한다고 한다. 직업재활시설인 연화원의 발달장애원생들의 오후 간식을 준비하는 일도 하고 있다.

함께 일하시는 두 노보살님께서 수화로 간단한 대화를 하시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었다. 노보살님은 처음엔 표정과 눈빛으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저절로 수어를 익히게 되었다고 하셨다. 처음부터 수어를 배워 청각장애인을 대해야지 하면 평생 할 수 없고 먼저 마음을 열어 같이 생활하다 보면 수어도 배우고 소통도 잘 된다고 하는 노보살님의 말씀은 의미가 크다.

오랜 세월 동안 해성 스님의 살핌으로 성장하여 오늘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하는 정인순 씨에게 해성스님은 언제나 광림사에 와서 부처님을 위해 봉사와 수행을 하니 고마우며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스님은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불자들의 자립생활을 도울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상 손과 발은 자유로워 이동과 활동에 제약이 덜함으로 사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서로가 이해하며 노력해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기독교에서는 장애인 목사가 많이 있고 가톨릭에서도 세계 최초 중증장애인 윤석인 수녀와 같은 예가 있다. 불교에서는 장애인이 출가를 할 수 없지만 부처님법을 전하는 포교의 일선에서 포교사, 종무원과 불교연구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로운 콘텐츠들이 개발되어지는 요즘 아주 단순한 업무에서부터 전문적인 종무행정까지 장애불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할 것이다. 고정관념의 틀만 조금 바꾼다면 가능하다.

어디선가 장애인 전문 인력이 없어 장애인들은 사찰에 가지 않고 대부분의 불자들은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공감가는 말이다.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님들만큼 좋은 장애인전문가는 없으며 조금 불편해도 신심 가득 안고 사찰에 가고자 하는 장애인도 많다. 〈증일아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눈이 어둔 아나율의 바늘귀를 끼워주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있는 그대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신 부처님의 모습이다. 스님과 불자 대부분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마하몰 ☎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